



警大學報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ess

學訓
祖國
正義
名譽

제200호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 발행인 서범수 / 주간 하미나 / 편집장 심동영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 전화 (041) 968-2114 / www.police.ac.kr

경찰대학 학보, 200호 맞이 특집



警大學報

본 모자이크는 경찰대학 학보가 37년 간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용된 사진은 제1호, 5호, 10호, 25호, 51호, 95호, 148호, 156호, 195호, 199호 학보의 표지입니다.
상기 학보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 학보가 걸어온 길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호 특집 목차

- | | | | |
|-----|----------------------------|----|----------------------|
| 2 | 보도 : 제37회 청람학술축전, 계절행사 | 10 | 경제 : 인터넷 전문은행 |
| 3 | 대학 : 국제교류프로그램, 치안대학원 | 11 | 사법 : 사형제도 |
| 4-5 | 기고 : 초대 편집장 노재호 총경 외 | 12 | 인물 :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 외 |
| 6 | 수사권 특집 | 13 | 교양 : 잃어버린 소녀의 꿈찾기 |
| 7 | 여론 : 청소년법, 최저임금제 | 14 | 교양 : 챗봇, 익선동 한옥마을 |
| 8 | 학보사 : 편집장 인터뷰, 학보의 역사 | 15 | 문화 : 서울 문래예술촌, 템플스테이 |
| 9 | 특집 : 혐오사회, 잊혀질 권리, 디지털 성범죄 | 16 | 문화 : 서울국제음식영화제 |

제37회 청람학술축전 개최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찰대학에서는 제37회 청람학술축전이 개최되었다. 총 3일 간 진행된 이번 청람학술축전에는 3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경찰대학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올해의 청람학술축전은 경찰대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닌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를 목표로 내걸었으며, 한가위를 앞두고 개최된 행사인 만큼 '한가위 한마당'이라는 주제 아래 풍성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청람학술축전은 경찰대학생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하는 장이 되며,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치는 행사가 되기도 하며, 평소에 둘러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제37회 청람학술축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바람을 즐기다

축전 전날부터 생활관 뒤편 다목적 운동장에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어울림캠프가 진행됐다. 평소 딱딱하게 느껴지던 교내 운동장에 학생들이 웅기종기 모였다. 학생들은 대화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평소 말하지 못했던 생각을 나누고, 우정을 한층 다져 가며 축제의 첫 밤을 보낼 수 있는 행사였다.

일상에서의 탈출을 언급하면서 대학생 기관 운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축제 기간 동안 셰프, 웨이터, 손님이 되어 평소 학교에서 맛보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을 맛볼 기회를 가졌다. 예년과 달리



▲ 무사하고 즐거운 축제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경찰대학 총학생장 이태균 학생

대운동장에서 열린 대학생 가판에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본관 지휘부를 비롯한 교직원 등 경찰대학 식구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전음주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생들 스스로 가판이 운영되었던 자리를 맡끔히 정돈하는 등, 교내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축제의 마지막 밤에는 '젊음의 밤' 행사가 열렸다. 숙명여대·덕성여대·한양대 댄스 동아리를 비롯하여 초청가수 밴, 헤이즈, 자이언티 등이 경찰대학을 방문하여 가을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경찰대학 가족들은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한마음으로 즐기며, 축제의 마지막 밤, 그 동안 쌓아왔던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젊음과 패기를 마음껏 뽐내다

한편 축제는 학생들이 숨겨왔던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도 시범단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총 4개 무도를 갖고 뒀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화려한 기술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매년 발전을 거듭하는 학생 시범단의 모습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환호를 내지르고 탄성을 내뿜을 수밖에 없었다.



▲ 낙범 시범을 보이고 있는 합기도 시범단

또한 농구, 풋살, 수중 격구 등 스포츠 대회가 축제 기간 중 경찰대학 교내 곳곳에서 열리었다. 평소 경찰대학생들이 운동을 즐겨하는 만큼 중

목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축제의 여유 속에서도 긴장감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경찰대학생들은 교내 동아리 공연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뽐내기도 하였다. '푸르미', '오르골', '미리내' 등의 동아리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었으며, 댄스 동아리 '프리메이니아'는 다양한 테마의 춤 공연으로 학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쉬지 않고 틈틈이 갈고 닦아 온 각자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 준 학생들을 향해 관객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실내 시화(詩畵) 전시, 학생 음악 경연대회인 '푸른메이리', 바둑대회 등을 통해 경찰대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과 소통하다

청람학술축전에서는 매우 진지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경찰대학생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은 축제 기간 동안, 평소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들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운동화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인 '희망의 운동화' 프로그램,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책갈피와 함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책 한 권을 선물하는 '사랑의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이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진행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감을 쌓고,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

한 마음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지만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직원들과의 수구, 풋살 경기를 통해 평소 어려웠던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생활관을 방문해보는 행사인 '오픈하우스' 행사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면모를 지닌 청람학술축전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였기에 더욱 그 의미가 컸다. 경찰대학 축제준비위원회(위원장 행정학과 3학년 최철규)가 홍보에서부터 진행, 행정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진행하였다. 최철규 학생은 "축제를 위해 1학기부터 열심히 일해준 22명의 축제준비위원회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축제가 개최되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학생 및 대학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의 경찰대학 축제는 더 새롭고 풍성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축제를 마친 소회를 밝혔다.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가 담긴, 경찰대학의 대표적 행사인 청람학술축전은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 사회에 다양한 의미를 남기고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토록 의미 있는 행사인 청람학술축전이 앞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꾸준히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학년 이상엽 기자 youplys@police.ac.kr〉

아시아 경찰 교육생 축제(PASFA), 치안학술대회(IUCP) 개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2017 아시아 경찰 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이하 PASFA)'가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 회원기관의 참가로 한층 체계화된 PASFA는 주최지인 대한민국의 경찰대학을 비롯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 13개 경찰 교육기관으로부터 총 41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여 초대 PASFA 개최 당시보다 행사 규모가 확장되었다.

'아시아 경찰의 미래, 우리 함께!'를 주제로 한 2017 PASFA는 교육생 간의 친목과 연대를 위한 측면과 치안연구지식을 공유하고자하는 측면에서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두 가지인 어울림 활동,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과 한국음식요리하기 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생들이 서로 친분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한 경찰대학 1학년 민혁기 학생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 치안을 위한 배움을 얻는 두 가지 활동으로는 '제3회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International Undergraduate Conference on Policing, 이하 IUCP)'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 치안기법 특별강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IUCP는 7개국 16개 팀이 참가하여 그 국제적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 교육생들이 치안 학술 연구논문을 공유하며 경쟁하였고, 예선을 거쳐 4개국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참여 국가의 증가, 논문 수준의 향상 등 여러 면에서 국제대회로서 한 층 성장한 모습이 보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PASFA와 IUCP는 교육생들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더 넓은 안목을 지닐 수 있게 해 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APTA 회원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가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치안 꿈나무들이 PASFA와 IUCP에 참여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 나아가 그들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아시아 치안 미래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학년 윤성민 기자 bocc12345@police.ac.kr〉

제2회 청람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지난 9월 4일 제2회 청람대학생 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토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시작된 청람대학생 토론대회는, 깊은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지난 2016년 초대 대회가 열린 이후 대학의 주요 행사로 자리 잡으며 많은 학생들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교내 행사다.



▲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

이번 제2회 대회에서는 초대 대회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 전체 참가자 대상 토론 특강 진행, △ 논제 선정 과정의 변화, △ 학생 참관 방식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 자치기구인 토론준비위원회(위원장 법학과 4학년 김석현)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에

서도 토론대회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경찰대학생들은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토론대회의 여정을 '함께' 거치게 된다. 각 토론을 참관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토론준비위원회 위원장 4학년 김석현 학생은 이에 대해 "대회 참가자 뿐 아니라 참관하는 재학생들에게도 토론은 큰 교육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 가곤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토론대회는 단순히 참가자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선보이는 무대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 모두의 생각이 어우러지는 장소, 교학상장의 터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학생들 간의 쌍방향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토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대학 전반에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가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경험을 하면서 토론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논리 전개 과정이 매끄러워지고

사고력, 발표력, 설득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향상된 능력을 바탕으로 토론식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토론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연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토론대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이에 대해 4학년 김석현 학생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자발적으로 참관할 학생들이 일정 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최근 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청람대학생 토론대회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대회이자 고유한 전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정착된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재학생들의 몫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토론대회가 더욱 성숙하고 주목받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학년 이상엽 기자 youplys@police.ac.kr〉

세계로 도약하는 경찰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APTA활동

1979년 설립되어 1기생들을 시작으로 올해 37기 신입생들을 맞이하게 된 경찰대학은 경찰청 소속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자 경찰교육기관이다. 경찰대학의 향후 비전에는 ‘글로벌 치안 인재와 지식의 산실’이라는 문구가 일부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부응하여 경찰대학은 2005년 사이버범죄대응역량 강화과정, 과학 수사과정, 범죄 예방과정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8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학술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국대학 혹은 경찰기관과 학술 및 상호교류협정 등 실질적인 교류를 맺어왔고, 올해 2월 22일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PTA)의 창립총회를 주최하는 등 치안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대학들과의 상호교류협정(MOU) 체결로 경찰대학은 다양한 국가와 학술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3년에는 6개국 8개 대학에 23명 위탁, 2014년에는 6개국 8개 대학에 18명 위탁, 그리고 2015년에는 5개국 7개 대학에 17명에 대한 위탁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교내에는 영국, 미국,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총 12명의 학생이 재학생들과 생활하고 있다. 재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서류 접수, 어학 및 심층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교환학생은 한 학기 동안 학생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게 된다. 해당 대학의 정규 학생 신분으로 수강신청 및 학과 생활을 하고, 대학의 각종 시설 이용은 물론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며,



▲ 동아일보와 상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 4회 CSV 포터상(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선 국내 기업 및 기관들에 수여하는 상)을 수상하는 서범수 경찰대학장과 APTA 사무국 직원 일동

이에 따라 본교에서 해당 학점을 인정받는다. 경찰대학생이 해외 대학으로 위탁 교육을 나가게 되면, 학칙에 따라 12에서 20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어떠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한 만큼 2년간 본교에서 법학, 행정학, 경찰학만을 배우던 것과는 달리 학문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평이다. 또한, 기존에 본교에서 타 대학 학생들과 비교해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기에 이수 학점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

APTA(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활동 소개

지난 2월 22일 경찰대학에서 14개국 21개(18개 창립회원국, 4개 옵서버)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APTA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경찰대학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APTA는 아시아 경찰 교류협력 강화 및 경찰 교육훈련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 각국 경찰 교육훈련 기관 및 아시아 국가 대학 혹은 아시아 이외 국가 경찰교육훈련 기관들이 주체적으로 결성한 국제 경찰 교육 협력체인데, 작년 6월 아세아나폴(ASEANAPOL) 사무국 방문 및

경찰 교육기관 간 직접 교류 채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경찰대학 대외협력체계는 동년 7월 다자간 교류활동의 가능성 점검을 위하여 제 1회 아시아 경찰대학생 축제(PASFA, 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를 개최하였고 특별회의를 통해 연합체 필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회원기관 모집 결과 14개국 21개 기관이 정회원 또는 옵서버로 APTA 참여를 희망하였고, 이들은 한국 경찰의 주도적 역할 및 지지 의사를 확인하여 APTA 창립에 동의하였다. 올해 4월 APTA 사무국이 경찰대학 내 설치되었으며 본지에서 직접 사무국을 찾아가 취재해 본 결과, 다양한 활동을 기

획 및 진행 중이었는데, 크게 학술 교류와 학생 교류의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학술 교류에는 교육훈련, 교재, 기법 및 커리큘럼 공유로 시작하여 교수·학생·교직원 교환 프로그램 등 회원기관 간 학술 교류를 통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 학생 교류로는 연 1회 아시아 경찰대학생 축제(PASFA) 운영 및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고, 이를 통해 아시아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준비 중이었다.

경찰대학에서 주도하는 APTA 활동은 다차원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다. 먼저 이는 경찰 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주도한다. 아시아 경찰 간 새로운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학술적으로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 실현을 위한 도약 발판 역할 등의 실질적 경찰교육 협력이라는 의의가 있다. 더하여 본래 아시아 국가 간 1대1 협력체계를 다자간 협력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술교류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진 경찰학과 경찰 시스템을 전파·공유할 수 있게 되며 아시아 경찰교육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외에도 APTA는 한국 경찰이 최초로 창설한 국제 연합체이며 이를 통해 APTA는 치안한류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시너지 효과로 우리 경찰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경찰교육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할 것이다.

〈2학년 황연준 기자
duswns1643@police.ac.kr〉

미래 치안지식 창출을 선도할 치안대학원



▲ 치안대학원 개원식

지난 5월 30일 치안대학원 개원식이 개최되었으며, 11월 24일에는 치안대학원장으로 이승호 교수가 임명되었다. 치안대학원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대학에 설치된 국가교육기관이다. 치안대학원은 실천형 인재상, 융합형 인재상, 통찰형 인재상, 미래형 인재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첫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경찰대학 소속 교수진 37명을 활용하여 경찰대학 강의동 등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치안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2년 동안 이루어지며 주간석사과정, 야간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주간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마치면 학문적 측면이 강조되는 학술학위를 받고, 야간석사과정을 마치면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학위를 받는다.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야간석사 과정에 한하여 논문 심사를 통과하는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학과는 수사학, 범죄학, 공공안전학으로 나누어지며, 학과 내에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수사학과(학과장 이동희)는 “인권 보장적 적법 절차와 더불어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선진 법제를 탐구하고, 범죄수사의 과학화 및 전문화 증진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한다. 범죄학과(학과장 박정선)는 “범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공공안전학과(학과장 서정범)는 “각종 사건사고와 무질서 및 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 법제도, 안전관리기법 등을 심층 연구

학과	전공	학 위
수사학과	수사법제 전공	수사학 석사·박사, 법학 석사·박사
	범죄수사 전공	수사학 석사·박사
범죄학과	범죄분석 전공	범죄학 석사·박사
	범죄예방 전공	
공공안전학과	공공안전법학 전공	공공안전학 석사·박사, 법학 석사·박사
	공공안전행정 전공	공공안전학 석사·박사, 행정학 석사·박사

▲ 치안대학원의 학과, 전공 및 학위

하고, 이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에는 석사과정만 운영되며 박사과정은 2019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18학년도 치안대학원생은 주간석사과정과 야간석사과정에서 각각 20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학과 및 신분별 인원을 탄력적으로 모집하지만, 경찰관 중 경위 이상 임직자는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치안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학부과정 전공학과와는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주간석사과정의 경우, 경찰청 주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경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

류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치안대학원에서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된다.

등록금은 잠정적으로 학기당 26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입학금은 무료이다. 주간석사과정 교육생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남자 교육생은 학생생활관을 사용하고 여자 교육생은 직무생활관을 사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일 년에 1억 1천여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등 교육생들이 학습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마련될 계획이다.

치안대학원을 설치해야겠다는 결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88년 대학 대토론회 당시에 정찬형 교수가 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수많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현재의 치안대학원이 개원할 수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치안대학원이 개원할 수 있었던 것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국민이 더욱 전문적인 치안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치안대학원의 교수진과 교육생들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끝없는 연구를 하기 바란다.

〈1학년 강윤석 기자
5800ys@police.ac.kr〉

祝辭



▲ 노재호 총경

경대학보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먼저 경대학보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경대학보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지금도 학보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학생 기자들에게 심심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경대학보가 국립경찰대학이 창설되고 1기생이 1학년이었던 1981년 8월 1일 창간되어 무려 36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어느덧 200호 발간을 맞이

하게 되었는데, 대학신문이 대학문화 창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경대학보 창간의 중책을 맡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필자에게는 감회가 무척 새롭다 하겠습니다.

경대학보는 그동안 진리의 추구하고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학내 건전한 언론 창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학당국과 대학생 간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대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갈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당국의 넓은 이해와 지원, 학생들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학보사 기자들의 인내와 용기, 지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대학신문의 사명이 학문연구라는 대학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때, 학생들의 애교심과 학구열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지적 교류의 수단으로서 일상적인 보도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 활동을 비판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경대학보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특수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의 신문으로, 결여되고 경직되기 쉬운 지식이나 사고의 폭을 좀 더 넓게 하여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기능을 다해야 하며, 단순한 학생들의 의사전달 내지 홍보의 성격을 넘어 학내의 건전한 언론창달 기능을 수행하되 기성세대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므로써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에 중립적인 견지에서 매개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금자탑으로 남은 200호 발간을 맞이하여 우리 경대학보가 독자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경대인의 참 소리지기로 거듭나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고 창조와 비판의 이념을 적극 실현하여 대학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편집권 보장’, ‘예산 지원’, ‘학보사 인원 확충’, ‘학생들의 관심’ 등 네 가지 요소가 필히 갖추어져야 학보사의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 학교 측과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인 것처럼 학교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경대학보의 존재가치나 의미가 없어지므로 더욱 큰 관심과 애정, 그리고 기자들에게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당부합니다.

경대학보 200호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뚜껑고 두텁게’라는 사훈 아래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애정으로 이어져 온 경대학보사의 무궁한 발전과 학보사 후배기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노재호 총경
(1기, 초대편집장, 광주경찰서장)

Carpe diem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자녀를 얻었을 때, 첫사랑을 만난 순간이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20살에 큰 의미를 두며, 그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살아가는 저는 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경찰대학생이라는 점도 분명 작용했습니다. 타 대학생에 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통학 시간의 부담도 없어 자기계발에 있어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학(學)보다 규범의 준(遵)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 처음에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금은 우울했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으며, 자부심을 갖기보다 낮춰야 했습니다.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니 참 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1년 1년이, 한 학기 한 학기 살아간다 생각하니 한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일 ‘지금’이 제겐 왜 한 순간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해답은 제게 있다는 것을 이번 방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전 유럽으로 대학생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로마, 피렌체 등 주요 관광지를 다니며 환경정화, 한글 홍보 등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조원들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공연마케팅을 공부하려는 분, 개그맨이 되어 김구라한테 욕먹어보는 게

소원인 분 등. 그때 전, 제가 진정으로 배운 건 제가 살 2년, 3년 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제 20살을 빛나게 해야 할 의무였고,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경찰대학생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거기서 본 제 또래는 분명 자유로워 보였지만, 스스로를 위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그것이 제게 보인다는 건 곧 대학에서 배운 행동이 여행 속 작은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찰대학생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예의바르고,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행 내내 조심한 것도 있으나, 그것은 책임감이었지 의무감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통한 자유를 배우는 지금,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과 학교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배움에 집중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순간을 사는 불만 많은 저, 손아귀의 힘으로 세상에 기여하기엔 미숙한 20세. 세상을 보는 눈도 어찌면 유치할, 반 불혹의 나이, 이 모든 것들이 방학을 성장으로 아로새기는 재료였습니다. 혹 누군가 이 글을 보며 제 2의 20살을 살기를, 20세를 아름다운 시기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경찰대학 1학년 백승훈 학생

스리랑카 빈민가에서, 다르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다

KOICA 스리랑카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파견활동

“야악!” 고함 소리와 함께 자전거를 탄 낯선 소년의 얼굴이 뿔뿔 나뉘었다가 사라졌다. 면전에 대고 지른 소리에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슬쩍 보며 킬킬대는 10대 중반의 스리랑카 소년은 냅다 페달을 밟아 달아나버렸다. “당황하셨죠? 여기 외국인들한테 가끔 저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동복지센터 직원 분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틀간 물갈이를 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시작부터 긴장한 몸에 힘이 들어갔다. 실제 빈민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봉사하러 온 입장에서 아무래도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내 몸이 벌써 이질감에 반응하고 있었다.

때와 먼지에 색이 바랜 건물 벽, 이 물질이 떠다니는 배수로의 푸르스름하게 썩은 물, 이국적인 음식 냄새와 뒤섞인 도로 곳곳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낯선 외국인 무리를 흘깃 쳐다보며 스쳐가는 눈초리... 그는도 없이 내려쬐는 햇빛을 맞으며 흠뻑이 나는 마을 한복판을 걸었다. 걸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었지만, 역한 냄새에 숨을 참으며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라오스, 미얀마, 쿠바 같은 개발도상국을 여행 다니던 나인데도 이런 빈민가의 리얼 라이프는 처음이어서 그럴까, 썩은 물이 흐르는 도랑 옆에서 빨래를 하고 밥을 먹는 이 풍경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랬을까. 카메라를 들고도 멀뚱멀뚱 걸어가는 친구에게 내가 찍겠다고 카메라를 건네받았다. 한 집 앞에서 앉아서 가던 직원 분이 걸음을 멈췄다. “여기 이 아이 집인데 들어가 보시겠어요?” 다들 선뜻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보여서 앞장서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 몇 없는 살림살이에 불이 들어오지도 않아 컴컴하고 답답한 방이었다. 평소에 여기서 자는 거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좁은 방, 깔끔하지 않은 선풍기와 잠들사니들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마을에 깊숙이 들어가며 몇 군데 집을 더 들렀다. 상황은 비슷했다. 종류도 많지 않고 그나마도 낡은 가재도구들과 어둡고 더운 방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이전 집들이랑은 다르게 깔끔했다. ‘이야, 여긴 깨끗하네?’ 별달리 찍을 것이 없다 생각하며 문 밖에 나왔다. 그러곤 눈앞의 더러운 배수로를 보고 다시 카메라를 들다 순간 멈춰섰다.

‘내가 이곳에서 찾는 모습은 뭐지?’

나는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집과 거리,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원하고 있었다. 그런 장면에만 카메라를 켜고, 그런 풍경을 찾아 부지런히 둘러보고 있었다. 빈곤 포르노를 만들어내는 몇몇 구호단체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르다고 강하게 말해주는 모습



▲ 우리와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더 많았던, 행복해 보이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모습

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구석진 곳을 찍으려던 손길을 멈추고 뒤에 있던 일행들을 향해 돌아봤다. 교수님과 몇몇 친구들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가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며, 마을 사람들과 짧은 심할라어로 인사하며 웃고 있었다.

내가 그 이전까지 다른 점만을 보려했을 뿐, 사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점이 더 많다. 웃으며 인사하면 마찬가지로 따뜻한 답인사를 건네

고, 심할라어로 얘기를 하면 신기해서 또박또박 알려주다가 깔깔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에서 과연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을 둘러보기를 마치고 빈민가 아동복지센터의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더 확실히 느꼈다. 흙투성이 맨발인 아이들은 처음엔 바다에 모여 앉아 기대감과 경계심이 섞인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 서툴게나마 이름을 외워 불러주

면 좋아하고, 같이 간지럼 태우는 장난도 치며 뛰어노는 건 우리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다. 번쩍 들어올려 팔로 비행기를 태워주니 자기들도 태워달라며 와서 손을 벌리고, 다른 친구에게서 손가락 하트를 배워 내게 수줍게 보이던 아이들은 나와 같은 세상의 아이들이었다.

사실 내심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니까 놀아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 교묘한 오만함은 낯선 이방인인 나에게도 사랑을 주던 아이들의 마음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변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건 어떤 옷을 입고 입건 상관없이 함께 살을 부리고 마음을 나누던 아이들은 결국 우리 모두 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세계 곳곳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따뜻한 관심과 함께 나눔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당장 밥을 먹지 못해서, 혹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몸이 아파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이들을 위해 남은 사람들은 부족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 역시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모두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행정학과 4학년 장만평 학생

繼往開來(계왕개래)



▲ 박경현 경찰대학 명예교수

영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 특히 대학신문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출할 지면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양을 넓혀 주고, 애교심이나 건전한 교풍을 형성하고, 전 학년 학생들의 중지를 모으는데 필요하고 역설했다.

대학신문은 무엇보다도 학교를 홍보하는 데 큰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타 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걸 강조하였다. 그 무렵 대학생들은 자기 대학신문을 우편으로나 직접 주고받으며 자기 대학을 홍보하고 대학문화를 공유하곤 하였다. 80년대 경찰대학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일반대학 학생들과 문화적 교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국내 우수대학의 대학신문과 각군 사관학교에서 발행한 학보까지 들이대며 관계 직원들에게 행정적 절차를 밟아 달라고 간청을 했다. 드디어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정부간행물발간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4면 격월간(隔月刊) ‘警大學報’ 발간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매년 기가 막히는 예산 책정으로 학생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일반대학 신문처럼 학생 자율경비로 구독료를 걷어서 신문을 발간하자는 작은 숨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학보를 편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때는 신문을 제작하려면 활자를 뽑아서 인쇄하던 실정이라 고도의 편집 기술이 필요했다. 인천 부평캠퍼스에서 학보를 인쇄하던 수원 경인일보사에 갈 때마다 신문사 직원들에게 지면(紙面) 한 쪽에는 몇 단에 몇 자가 들어가는지를 익혔다. 타 대학 학생기자들에게 눈동냥을 하기도 했다. 인쇄 직전까지 원고량을 맞추기 위해 이미 작성이 완료된 원고를 즉석에서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였다. 최종 기사는 인쇄 직전에 확정되기 일쑤였다. 우리는 까탈스러운 신문사 공무원 직원들에게 깎듯이 거수경례를 하며 경찰예비간부로서의 예를 갖추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기자들은 사회의 여러 분야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서서히 체득할 수 있었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라 어느 대학 신문이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사이에 게재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곤 할 때였다. 특히 우리 학교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것인가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 당국, 주간교수, 학생기자 사이의 조율하는 게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한때는 외부대학 신문에서 경대학보에 발표한 학생 원고에 칭찬도 하고 동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시비를 걸어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신문이 나올 때마다 설레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학보기자들은 언론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

1988년 4월 21일자 학보에 ‘국립경찰의 민주발전을 위한 제안’이라 하여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어느 개인의 이름으로 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기사를 냈던 기억이 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경찰에 관한 단일 기본법 제정, 경찰기구 독립, 경찰 조직의 체질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 등

에 대해서 당시 학생들로서는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래 경찰의 주역으로서 언젠가 한번은 부르짖어야 할 심상한 목소리였다. 보도 기사는 당초 대학만의 보도나 홍보 기사를 게재하기로 했지만, 후에 전 경찰 관련 보도 기사까지도 신겨 되었다. 학생들은 경대학보가 학생신문이나 경찰신문이나 특정인의 신문이나 정부간행물이나 월가월부하는 진통을 다소 겪었다. 사설이나 논설은 당시 80년대 정치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작성하여야 했다. 초창기에는 주간교수가 전담해서 썼지만, 그 후 전임교수들이 순번제로 작성했다. 학내외의 저명한 교수들의 학술적인 소논문을 게재했다. 원고 청탁과 원고 회수, 원고 교정 그리고 원고료 지불 등의 일은 대단히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작품시, 소설, 수필, 사진, 서예 작품, 만평까지도 신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했다. 특이한 것은 학내 발간 외국어신문이 없으므로 외국어로 쓴 에세이도 연재하였다. 기자들은 학보를 학생의 신문으로 만들어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실감했다.

학보기자들의 출장 외출은 자유롭지 못하였다. 자주 외출하고 늦게 귀교한다고 해서 별점까지 받는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유가 불분명한 꾸지람을 자주 먹어가며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해 왔다. 심심치 않게 거론되던 폐간의 위기도 이겨냈다.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여론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욕박지르고 또 한편으로는 타성에 젖은 언론 기피증으로 대학신문에까지도 못마땅한 눈총을 쏟아대는 와중에서도 의연히 지켜온 덕성, 그리고 재학생들의 경

찰 중립화 선언을 과감히 발표한 무지막지한 용기, 개인의 사진을 크게 신지 않았다는 질책을 퇴교로 맞선 P군의 야성 등 협준한 고난의 터널을 거쳐 왔다. 언론이 쌓이면서 학생기자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점을 갖기 시작했고,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경대학보 최근호는 놀라울 정도로 변신을 했다. 발전인가, 정체인가, 퇴보인가? 격월간이던 학보가 언제부터 ‘신문(新聞)’이 아니라 ‘구문(舊聞)’이나 다루는, 다이제스트(digest)나 신문을 스크랩(scrap)한 계간 교양잡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나? 첨단 SNS시대에 보도, 비판, 건의, 토론, 시론, 사설 등의 소통문화는 학교 홈페이지나 웹진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보다. 요즘 종이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학우들에게 ‘읽고 싶은 신문’, ‘참여할 수 있는 신문’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들이 쓴 기사만이 보이고 학우들의 생각과 느낌을 쓴 각종 문학작품, 만평, 사진, 제안 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대학보는 ‘학보기자들만의 리그(league)’가 아닌 ‘경찰대학생 모두의 여론 광장’을 마련해야 한다. 재학 중 자신의 목소리가 학보에 게재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게 제작되길 바란다.

창간 12년이 되던 1993년에 100호를 발간했는데, 어찌 24년이나 지나서야 200호를 발간하게 되었을까? 지난날의 경대학보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 보며 앞날의 발전책을 찾아보기 바란다. ‘계왕개래(繼往開來)’하시라.

박경현 경찰대학 명예교수

“뚜겁고 두텁게” 학보 2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학보 2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경찰대학 탄생과 함께 시작한 학보사는 일반대학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선배기자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학보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기사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기자들, 그리고 현직기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보사는 대학의 중심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요 학교 내의 이슈들을 다루며 학생들에게 사회 인문학적 지식과 감성, 정보까지 전달해주는 것이 학보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장이나 취미생활을 넘어서 사회적 역할과 공적인 책임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람 있습니다. 그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꼭 짜인 수업일정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기획과 취재, 원고 작성, 편집과정들을 해내는 기자들이 자랑스롭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완성해나가면서 지적으로 성장해나가고, 또한 학보사의 사훈처럼 선후배간에 “뚜겁고, 두텁게” 형성되는 유대감을 통해 인격적으로도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학보에는 경찰대학생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문

화적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대학생활을 추구하며 어떤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경찰대학의 성장과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보가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경찰대학에 20여 년 간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의 성장과정과 학교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늘날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자유와 동시에 책임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이전보다 유연해진 캠퍼스생활의 자유일수도 있지만 경찰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개성 있고 유연하게 정립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주어진 자유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따라서 믿음에 대한 책임감 역시 수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경찰대학생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자화상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할 즈음이면 여러분은 경찰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튼 사람”이 될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주어진 업무들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에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는 “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

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이전에, 진부한 도덕적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며 올바른 인성을 지닌 “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대의 경쟁사회는 “된 사람”보다 “난 사람”이나 “튼 사람”을 요구하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된 사람”의 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다시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인성은 특히 주 업무가 사람을 대하는 경찰이 지녀야 할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간에 얽힌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인간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성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찰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성과 인문학적 교육은 전문지식의 습득에 앞서는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대학의 기본교육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교육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대학은 종종 다닐 가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한 예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잡스는 대학 교육이 자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

는 수업까지 듣게 하고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돌아켜보니 그것이 자신이 한 가장 잘한 결정들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중퇴 후에도 약 18개월을 대학에 머물러 있었고 그 시절에 들은 서예수업은 후일 맥 컴퓨터 디자인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대학 중퇴가 그의 성공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의 시간들이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가치 없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잡스와는 달리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한 저명한 문필가가 인성과 인문학적 측면에서 대학의 가치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I Never Went To College”라는 글에서 자신이 대학을 다녔더라면 얻었을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과 명성을 얻었지만 대학을 다니지 않아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의 우정, 폭넓은 교양과 고귀한 이상을 지닌 사람들을 사귄 기회,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한 철학적 사고와 식견의 확대, 동창들 간에 느끼는 전통과 유대감, 거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는 4년간의 보호기간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덕목에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지식 습득도 들어있었지만 대부분이 삶을 따뜻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인성과 인간관계, 문화와 교양, 그리고 자존감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대학을 다녔으면 그런 것들을 성취했으리라 확신하였습니다.

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학문적인 성장 외에 친구, 선후배들과 우정을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넓히고, 인생 선배인 교수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에 대한 자문과 지혜를 얻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교활동이나 여행, 독서 등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사회 인문학적 식견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4년간의 생활은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진정한 엘리트 청년경찰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지식에는 머리를 열고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서 지적체를 갖춘 멋진 경찰대학생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찰대학생의 모습을 담을 더욱 멋진 학보도 기대합니다.

하미나 경찰대학 교수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해 무더진 수사의 칼날

근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벼슬의 주식을 대가없이 받아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에 이어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등 이러한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병폐를 낳는다.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검·경의 수사지휘권 조정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지휘권자를 검찰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 초기 일제 시대의 경찰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사권한 독점 규정은 현재 검찰의 부정부패, 전관예우, 권한남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은 검찰비리, 내부감사의 동업자 봐주기, 전관예우, 비리검찰에 대한 영장 불청구와 같이 수사의 칼날을 무더지게 하고 있다.

현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크게 두 곳으로, “사법경찰”과 “검찰”이 있다. 현재 수사과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소송절차는 검사가 절대적으로 관여한다.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인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리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4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4조는 검찰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

리의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형 집행 등의 모든 형사절차에 대해 직접 관여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헌법에서는 검사만이 영장을 법원에 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기소독점권, 공소취소권, 직접수사권,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독점권의 권한을 독점하여 형사절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넘어 수사전반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 우선 첫째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판중심의 재판이 조서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검찰의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조서를 일반수사기관의 조서와 다르게 취급하는 조서재판은 검사와 판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판단에 대해 소홀해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재판원칙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의한 조서재판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둘째,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개입은 수사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으로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개시·진행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승인절차로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찰의 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중조서절차로 인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셋째,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 부여하는 독점적인 구조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모두 장악하는 구조에서는 검사가 유죄라는 결과에 집착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검찰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감추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거래를 통해 진술을 받아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미한 죄로 기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자백을 유도하거나 혹은 다른 범죄혐의에 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유로 인한 자백과 진술은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의사가 수사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넷째, 검찰에게 지나치게 부여된 권한은 경찰회의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경찰의 수사지휘권의 부재는 자칫 업무에 있어서의 무능감으로 인해 의욕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경찰업무의 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게 자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업무에서의 활력을 높여 치안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사의 권한남용과 부정부패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5차 개정헌법 이후에 제12조와 16조에서 “검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구문을 통해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

법에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념이며, 이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스스로가 아닌 중립적 제3자인 법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독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으로써 검찰은 경찰수사를 자의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는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살펴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하나의 기관에 부여한 경우는 드물다. 영미법계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기소와 수사를 독립시켜 사법경찰과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분리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안·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의 독일과 일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검찰은 보완적 수사기능을 행함에 그치며 검사가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권의 연혁과 미래

대한민국의 독점적 형사구조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형사사법”을 연원으로 한다. 검찰권한의 독점화는 형사절차의 지배를 통한 효율적인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 광복 후 미군정 시기에는 일제식 수사구조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미식 구조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의 냉전 상황 속에서는 형사사법체제의 신속한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사권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역시 검사중심의 수사구조를 답습했다. 당시의 입법자들도 법리상으로는 수

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겼지만, 식민지 시절의 경찰의 신뢰도와 자질론에 부딪혀 기존체제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기조는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여러 개혁의 시도 끝에 2011년에 들어서야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제정된 대통령령은 검사의 수사지휘 제한의 취지와는 다르게 검찰권한의 재확인에 그치고, 경찰내사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개입 인정하는 등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며 경찰은 수사와 기소의 주재자인 검찰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는 기소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며, 무고한 시민의 구제와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 또한 수사를 통해 이를 수 있는 일들이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이때까지 권한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과거처럼 수사, 기소, 재판을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규문주의가 오늘날 용인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재판보다는 권한의 분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의 비리개혁과 수사권 조정을 향한 움직임에 다시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어야 하듯이,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분리되어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된 형사사법구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2학년 유준현 기자 ykevin@police.ac.kr〉

인권친화적 경찰로의 길 그 필요성과 현 상황

경찰청에서는 “경찰다운 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을 목표로 경찰개혁을 기획하고 있다. 인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 조직도 과잉 수사를 하던, 정치권과 결부되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려 하는 것이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어 만기복역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 등을 반성하고, 인권 수호를 위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고자 한다. 또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경찰의 권한이 비교적으로 높아질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견제 장치와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어느 한 조직이 비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권한남용과 부패의 위험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얻게 되는 권한과 그에 대한 견제책의 균형을 적절히 맞춤으로써 인권 침해

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수사권 조정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을 인권경찰, 자치경찰제 등 전반적인 경찰개혁과 함께 시행해나갈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추진본부와 경찰개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경찰개혁추진본부는 경찰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종래의 경찰개혁추진 TF와 수사구조개혁단을 통합하여 8월 16일 발족한 단체로, 박진우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민갑룡 기획조정관을 부본부장으로 임명하며 위상이 격상되었다. 경찰개혁추진본부는 외부의 시선으로 경찰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며 경찰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 3개로 분과되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한다. 7월 13일 1차부터 9월 14일 4차까지 인권보호 분과와 수사개혁 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

분과 위원회	개혁안 내용
인권보호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쏫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백서 발간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방안 ▷ 경찰에 대한 시민 통제기구 신설 ▷ 인권 보호를 위한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수사개혁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 도입 ▷ 장기 내사, 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각 분과 위원회에서 9월 8일 까지 발표한 권고안

안을 발표하였다. 경찰개혁추진본부는 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였고,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10월 19일 자치경찰 분과에서도 고심 끝에 자치경찰 모델을 발표하여 경찰개혁에 한 걸음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권고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권고대로 설치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민의

통제를 받으며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자문체인 경찰개혁위원회의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을 100% 수용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 의견을 경찰 개혁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은 좋지만,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본부 양측 모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개혁의 요청에 압박감을 느끼며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혼란만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쉬운 것은 애초에 수사개혁 분과의 목표였던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관련된 논의에서의 진전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의 전제는 수사권 조정이었다. 자치경찰은 물론 그 자체로도 경찰이 관료주의에서 탈피하여 현장 주민의 수요대로 치안을 담당하게 한다는 기능이 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이며, 수사권 조정 모델로서 영·미식 또는 일본식을 계수할 때 그들의 배경이 되는 경찰조직의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데에 필요의 근거가 있었다. 또한 수사권을 경찰로 재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권한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길이며,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수사권 조정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표한 경찰개혁과제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인권친화적 경찰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1학년 노영민 기자 20170033@police.ac.kr〉

범죄의 중심에 선 소년들... 소년법의 미래는?

폐지하자는 주장 빗발쳐...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 주장

잔인한 청소년 범죄... 논란의 중심에 선 소년법

최근 인천 초등학교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경악스러운 사건들에 청소년들이 연루됨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제 1조에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만 10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불가하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축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그리고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동법 제 59조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형의 형벌은 15년까지 감경된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살인, 강간 등의 범죄의 경우엔 한해서는 동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점점 더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이 면죄부로?

하지만, 소년법 폐지 찬성론자들은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네티즌이 28만 명을 넘기면서 소년법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법 제 9조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이에 따라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의 ‘형법 법령에 저촉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7월 13일 JTBC ‘썰전’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도 각국의 소년법 체계가 “나라마다 다른데 어느 나라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형법상 미성년자 기준의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같이 ‘썰전’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도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초등학교 왕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면 조사 자체를 안 받는다. 그걸 애들이 안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고, 부모가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소년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미성숙한 청소년도 많아... 처벌보다는 교화를

한편,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청와대는 ‘소년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고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은 소년원은 가능하면 갱생,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교도소는 가둬두는 쪽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소년법의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 14세의 나이기준을 만 12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만 14세의 나이기준도 ‘독일과 같은 법’이므로 국제기준



▲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글

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소년들이 성숙하여 중학교 1학년도 중학교 1학년 같지 않아 소년법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반대로 아직도 중학교 1학년인데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다”며 더욱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9월 14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고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론을 좇는 일”이라며 “무조건 여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내고 이러한 건 대책도 없이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소년법을 만든 이유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정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는 처벌에 중점을 두게 아니라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다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어딘보다 많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의 범

죄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을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게 되기에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제약들도 동시에 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이렇듯 소년법 폐지는 법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행 유지나 폐지나... 해결책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명이 평균 134명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 보호관찰관 제도의 관찰관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인당 27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란 퇴직한 의사나 교육계열 종사자들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임명하여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식사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와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엄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과 교화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소년 범죄의 발생과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1학년 옥재안 기자 ckdgus6068@police.ac.kr)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너무 높아 경제 성장 방해해 vs 소득 늘어 경제 성장해”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6.4% 오른 임금이다. 이미 확정되긴 했지만 정부가 목표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승률을 15% 정도로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이런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에 대하여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하다.

쟁점1.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경영계
높은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동자 측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최저임금을 올릴 시 발생 가능한 고용 관련 문제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에 대해 기업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며, 대응으로 구조조정, 신규 채용 감소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즉,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전체 가계 소득을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창원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창원기업 의견 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 중 85.4%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며 대응책으로 '연장근로 축소', '신규 채용 축소',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사드 충격, 청년 실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에 빠져 2분기와 3분기 모두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최저임금만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 표1.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칠 부정적 연쇄 효과'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

고 이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소비가 증가하니 생산이 증가한다. 늘어난 생산량을 맞춰야 하고 기업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니 고용이 증가한다. 즉, 임금인상으로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실제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회복을 위해 임금인상에 나서달라”라고 말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면 소비 주도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우 소비성향이 높아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선순환을 기대해볼 가능성이 크다.



▲ 표2.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경제의 선순환'

쟁점2.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가?

경영계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 국가별로 최저임금액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고정 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만약 영국, 프랑스처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더 올라간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할 만큼 높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노동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게 맞다. 우선, 복지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유럽의 선진국과는 사

회시스템이 달리 한국에서는 생계비가 많이 필요하다. 즉, 여타 선진국에 비해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다. 그렇기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저임금이 수치상 높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7년 OECD는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소득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등 최저임금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끝없는 논쟁이 오가고 있다. 기업 없이는 노동자가 없고, 노동자 없이는 기업이 없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인만큼 경영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1학년 권준수 기자 soon9624@police.ac.kr)

경찰대학 학보, 편집장이 말한다

경찰대학 학보사는 1981년 대학 설립과 그 시작을 같이 한 기관으로, 학내 중요한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학년 수습기자와 2학년 정기자 모두 분기별로 학보 발간에 힘쓰지만, 무엇보다 학보의 기획부터 발간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은 편집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경찰대학 학보의 200호 발간 기념을 축하하며, 34대 조정필 편집장과 35대 심동영 편집장을 인터뷰 해보았다.

의견을 교류하지만 편집장과의 상의하게 됩니다. 특히 편집장은 주로 기사의 선정, 배치 등 거시적인 조정을 하는데 이는 학보의 전반적인 성격,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또한 학보를 발행함에 있어 양질의 기사도 중요하지만 예산, 행정 등의 실무적인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발행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 역시 편집장의 역할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관리하는 것 또한 편집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심동영 : 조정필 학생이 잘 설명해준 것 같은데요. 조금만 첨언하자면 편집장은 면 별로 제각기 움직이는 정기자들과 수습기자들의 기획안과 기사들을 선택, 검수, 교정, 배치, 종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학보가 나와 배부되기까지의 과정을 총괄, 감독합니다. 또한, 지휘관들과 학생기자들 사이의 지시·명령 또는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졸업생 환송회, 정기자 임용식 등과 같은 대내외의 행사와 모임을 계획하고 2학년 총무학생이 관리하는 재정의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조정필 : 경찰대학 학보는 여타 대학의 학보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경찰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며 우리 대학은 경찰관을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대학생들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세워나갈 수는 있지만 학보는 언론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사안의 경우 학보의 주제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그러한 주제로

기사를 기획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경찰대학 학보사 편집장으로서의 책임도 도의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에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심동영 : 아마 제가 말할 내용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의 학보사 편집장이 공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감기한이 압박하였는데 일부가 지각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완성이 불투명한 경우 학보의 총책임자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학보사는 면별로 따로 움직이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늦장을 부려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편집이 지연되다 보면 다른 면이 맡았던 주제의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어 해당 호의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상존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시킨 기사가 실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조정필 :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처음 편집장으로 선출되던 순간입니다. 편집장이 되기 전, 기자로 활동하며 두 명의 편집장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지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편집장의 역할을 제가 수행한다고 생각하니 1년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는 지난 1년이 추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만 제가 편집장으로 확정되던 그 순간에는 눈앞이 컴컴해지고 주변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심동영 : 저도 조정필 학생과 마찬가지로 제가 편집장으로 선출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학보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정필 학생 이후 여러 사정이 겹치며 편집장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간의 학보사에 비해 인력과 자원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혼란 수습의 역할로 제가 편집장을 맡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다들 많이 도와주어서 학보사가 제 역할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200호 편집까지 잘 마무리하여서 이것 또한 재밌었던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경찰대학의 학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심동영 : 경찰대학의 학보는 관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국의 여러 관공서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사의 내용과 방향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고, 학보의 시작과 끝까지 신중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학보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정필 : 지금도 종이신문을 보는 학생들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데 익숙합니다. 종이신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간다면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벤트 형식으로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동영 : 기사가 학교 외부로 뜻하지 않은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비공식적인 모습 혹은 실생활의 관심사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학보에는 분명 그런 요소들도 많았으니만큼 당시의 여건과 철학이 어

뻤었는지 연구해보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대학 학보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심동영 : 학보사는 1기부터 이어진 경찰대학의 정예부대요 전위대이고, 홍보단과는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찰대학의 또 다른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빠박한 학교생활에 적지 않은 업무량을 추가하니 고된 면도 분명 있으나, 적당한 부담감과 학보사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왕 하는 일 즐겁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훗날의 학보사는 더 날카로운 식견을 가진 언론 기관으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조정필 :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보에도, 학보사 구성원들끼리도 애정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언론인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순간을 즐기며 나중에 추억할 만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심동영 : 작년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떠난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전임 편집장 정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충실히 따라와 준 에이스 총무 우진, 학보사에 가장 많은 희생을 바친 34기 동기들 동주·지오·현필·강균·바재·우·승교, 혼란기에 들어와 덜컥 정기자 되어 수없이 좌충우돌했을 36기 상엽·준현·창현·연준·진수·유정·용재·채은, 이제 200호 너머의 주축이 될 37기 성만·영민·준수·윤석·준호·병준·재안·정현·예림이에게 모두 아끼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차기 편집장의 건투를 빕니다.

(2학년 문진수 기자
wlstn2712@police.ac.kr)



▲ 왼쪽부터 조정필, 심동영 편집장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정필 : 작년 한 해 동안 경찰대학 학보사 편집장을 지낸 4학년 조정필입니다. 편집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197호와 198호 학보를 발간하였으며, 편집장이 되기 전에는 7면 교양면을 담당했습니다.

심동영 : 올해 경찰대학 학보사 편집장을 맡게 된 4학년 심동영입니다. 아마 4학년 편집장은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 199호와 200호 학보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편집장이 되기 전에는 3면 대학면을 담당했었습니다.

학보사 편집장으로서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 있나요?

조정필 : 편집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학보의 편집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기사를 기획하여 취재, 작성하고 판모양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같은 면 선·후배들과도

“뚜껑고, 두텁게” 경대학보의 발자취

1. 경대학보의 탄생



▲ 경대학보 창간호(1981)

경찰대학 학보는 1기 강경량 기자를 비롯한 26명의 기자와 박경현 전임 교수의 주간 아래 1981년 8월 1일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당시 한 학년의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신문인만큼 빈 공간없이 경찰대학과 시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이 실렸었다. 또한 경찰대학의 설립과 발자취를 같이한 창간호답게 경찰대학 용인캠퍼스 소개와 축사 등의 글로 장식되었다. 그 당시 1980년대 초반은 인터넷 보급이 안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보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컸었고, 경찰대학의 큰 관심을 받으며 학보가 창간되었다.

2. 어제의 경대학보

예전의 학보는 지금의 학보와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기사가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8면이 고정된 형식과 구별된다. 현재의 8면체제는 116호(95년도)부터 그 틀이 잡혀왔다. 이 당시 학보는 보도, 여론, 특집, 학술, 기획, 문화의 6개 주제로 나뉘었으며 현재의 대학면은 여론에, 교양면은 문화면에 해당 내용의 기사가 실렸었고, 학술면은 지금의 인물면이 대체하게 되었다. 창간호 발행부터 지금까지 학보는 경찰대학과 경찰조직, 그리고 여러 시사 및 교양내용들을 폭넓게 다루어왔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학보에 학생의 시나 수필, 학교나 경찰에 대한 독자 투고 등 다채로운 내용이 실려왔다는 것이다. 그 시절의 학보는 학생들이 의견과 사상을 표출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기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오늘의 경대학보

이번 발행으로 200호를 맞은 현재, 경대학보는 경찰대학의 소식과 여러 분야의 지식 및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8면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각 면별로 주제가 구별이 되는 기사들을 작성함으로써 학보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경대학보사에서는 최근에 학보의 카드뉴스 게시나 면개편 등, 학보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한 학년당 총 9명의 기자로 구성되는 학보사 기자단은 ‘뚜껑고 두텁게’라는 학보사의 구호아래 바쁜 학교생활 도중에도 학보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호가 말해주듯이, 학보사는 선후배관계를 넘어 가족같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기관이다. 주기적으로 동기 기자단이 모여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고, 면별로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며 학보사만의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다.

4. 내일의 경대학보

경대학보의 제100호 특집기사 ‘내일의 경대학보’에서는 학보의 미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글쓴이는 학보 기사의 주제들이 학생기자가 주체가 되어 선정되며, 대학구성원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20여년 지나, 다시 200호가 된 지금 경대학보는 과거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경대학보에는 여가시간도 미루며 좋은 학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기자단의 청춘이 담겨져 있다. 학보사에 대한 자발적인 애정이 담긴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기자들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고 학생들의 의견이 유연하게 표출되도록 권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37기 학보사 수습기자 (왼쪽부터 노영민, 안준호, 김병준)

(1학년 안준호 기자
ahnjuno96@police.ac.kr)

끝이지 않는 혐오, 지금 대한민국은 ‘혐오 사회’?

‘색안경(色眼鏡)’,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어 무엇인가를 좋지 아니하게 보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이 색안경으로 인해 병들어 가고 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관용의 정신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내가 속한 집단보다 소수이거나 약한 사람을 배척하는 ‘혐오’의 정신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본인과 다른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혐오 사회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혐오는 공기를 통해 쉽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와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고통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싫어하는 개개인의 생각이 어느 순간 모여들고, 같은 생각을 가진 커다란 군중이 모여 다른 집단을 배척하기 시작한다. 혐오의 정신은 비판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인 양 집단 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혐오표현은 무비판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표현에 수많은 공감표시와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은 또 다른 싸움의 장이 되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특

히 SNS를 통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이유는 표현의 심각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배우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혐오를 주동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외치지만 본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소수자나 약자를 조롱하고 비난할 권리는 아니다. 더 건설적인 사회 건설로의 목소리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억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권리가 변질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혐오 사회’가 아닌 건전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관용의 사회로 나아가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회에 만연하는 혐오표현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표현부터

성차별적인 표현까지 다양...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 시급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부터

잘못된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과

혐오를 지양하는 사회 분위기 필요

대한민국 사회의 혐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일부 미성숙한 어린 아이를 무작정 감싸고 도는 엄마를 지칭하는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이 있다.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이의 행동을 ‘개념 없는 행위’로 일컫고, 이를 방관하거나 보호하려는 무책임한 일부

어머니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모든 어린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에 대한 혐오 등이 있다. 이러한 혐오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그들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향해서 혐오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혐오의 이유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해결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가 존재한다. 현대 경쟁 사회뿐만

하고 여혐 논쟁에 불이 붙게 된 것이다. 이는 혐오와 이성적인 비판의 경계가 가장 모호한 영역이기도 하면서 다수의 소수에 대한 혐오가 아닌 수가 비슷한 집단 사이의 첨예한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지만 가장 다루기 힘든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미 만연해 있고, 앞으로는 더 보편화 될 대한민국의 ‘혐오 사회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지만 최고의 해결책은 역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적인 배려에서부터, 만약 사회적 약자라면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시행과 같은 방안 등이 존재할 수 있다. 혐오

고자 하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지녀야 한다. 또한 일부로 전체를 판단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있다면 이번 남녀 갈등 문제가 단순 혐오로 끝나기 보단 오히려 양성평등에 대한 공론화와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혐오표현을 학습한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다. 실제로 서울시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인 혐오표현을 바로잡고자 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한 ‘성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시 전체 중학교의 약 10%를 대상으로 한 쪽에 치우친 젠더 교육이 아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실천적인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교실이 혐오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은 옛날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 성별만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차별과 불합리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종착역이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혐오는 지양되 관용은 지향하는, 나와 다른 생각을 짓누르는 것이 아닌 포용하고 나란히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평등과 관용의 사회’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2학년 문진수 기자
wlstn2712@police.ac.kr〉

대상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인종/민족	71.4	20.7	7.9
성적기호	64.7	23.8	11.5
출신지역	61.5	29.3	9.2
성별	60.3	31.9	7.8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16년 7월 16~18일, N=1,039)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왜곡된 성별에 따른 가치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을 가하게 되고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서로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등장하게 되어 본격적인 남

녀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줄어들 수 있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은 상대방의 권리 신장이 나의 권리 박탈이 아님을 인지하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부당한 성차별을 해소하

사생활 침해는 이제 그만,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

올해 초 한 여성이 국내 여러 언론사에 자신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미인대회 출신인 이 여성은 본인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미인대회에 참가할 당시의 수위 높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이를 수용하였지만 다른 언론사는 이미 보도한 내용을 삭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를 두고 언론사에서 이러한 개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원치 않는 정보를 삭제 혹은 확산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잊혀질 권리’라고 한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이 일말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날이 높아짐에 따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도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사생활 존중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존중받아 마땅한 권리이지만,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대형 언론사에서 중대하게 다루었던 사안이라면 기사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잊혀질 권리의 제도화를 조금씩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조되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은 누구든 게시관 관리자 혹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기계시물 및 사자(死者)의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에 대한 삭제 혹은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힘입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잊혀질 권리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는다. 자칫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했던 조치들이 오히려 유명 기업이나 정치인의 과거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형 병원에서의 의료사고, 혹은 유명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같은 사항이 인터넷상에서 지워지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명백히 침해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들은 설사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혹은 접근배제 요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이처럼 옹호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구촌 사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은 올해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발의하였고, EU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되 지속적인 비판의 목소

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는 정보의 범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불법 행위가 단순 삭제 요청에 의해 아예 없던 일로 둔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합법적이면서 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만 이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에서 다루었던 기사는 삭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져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 또한 제한하여야 한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의 인정이 오히려 공직자에 대한 여론의 감시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이 빈번하고, 개인정보가 범죄에 동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시대이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못지않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한 가치이다. 어느 하나의 가치도 경시되지 않는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언론과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초기 가이드라인 단계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잊혀질 권리의 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학년 김강균 기자
kgg0410@police.ac.kr〉

보이지 않는 공포,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지난 9월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제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속칭 몰래카메라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 등의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부처로서 연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방지에 나서게 되었다.

사실 국내에서도 온라인 네트워크가 보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으며 관련 부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게 되었다. 이는 젠더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의 대처방식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작용한 영향이 크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게 된 이유로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초소형 불법카메라의 만연한 유통이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혼잡한 지하철이나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개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몰래 성관계장면 등을 촬영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일주일 가량 영상기기유통업체에 대하여 불법카메라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종 1397개의 불법카메라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법영상을 소비 및 유통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개개인들의 존재가 불법영상이 근절되지 않았

던 근본적인 이유이다. 처음에는 판매자들도 단순한 충동으로 커뮤니티 등에 영상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비슷한 부류의 영상에 대한 소비와 요구가 끊임없이 존재하여, 판매자 측에서도 그와 같은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여 돈을 받고 사이트나 광고업체 등으로 넘기는 등의 행태로 진화해왔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고정하고, 공직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시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카메라의 유통에 관련된 업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신고시 해당영상의 삭제·차단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3일로 줄이는 등 유통과정에서부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영상의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상담 및 법률서비스와 의료·보호시설을 지원하여 피해자 구제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가해자의 처벌에만 중점이 맞추어져 있던 성범죄의 대응방식이 피해자의 권리구제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종전에는 경시되었던 피해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학년 안준호 기자
ahnjuno96@police.ac.kr〉

은행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 것들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출범에 이어서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직후 한 달간 307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년간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설된 비대면 계좌 수인 15만 500개의 자그마치 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9월 초 기준 케이뱅크의 누적계좌는 49만 건, 예적금 8,000억원, 대출액 6,500억 원이다. 케이뱅크는 주요 고객이 여타 시중은행과는 달리 젊은 경제활동에 활발히 종사하는 30대에서 40대라고 한다.

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금융업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IT 플랫폼과 각종 빅데이터의 '집약체'로서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고 금융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가격과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금리의 단층현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중금리대출 시장도 한층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장구 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고 온라인 네트워크와 ATM, 콜센터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비대면·무점포 형태의 운영을 통해 계좌의 개설과 계좌이체, 대출 신청 등의 은행 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절감되므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나은 조건의 예·적금과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계좌개설의 단계에서 타 시중은행에서 필수적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가 공시한 계좌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7분 정도로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체가 가능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수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름만 입력해도 바로 이체가 가능하다.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상태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필요한 것을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된 인터페이스는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자 부문에서도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강점을 지니는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자료에 의하면 카카오뱅크의 이자가 기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2.00% 수준이고 자유적금 금리는 2.20%로 은행들 중 첫 손가락에 꼽힐 만큼 높다. 카카오뱅크는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ATM에서의 입·출금과 이체 수수료가 모든 이용자에게 면제된다. ATM에서 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할 때 항상 수수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대출이 쉬워지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8월 금융시장 동향'

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은 7월보다 6조 5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신용대출은 전월보다 두 배 정도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규제로 인해 부담스러워진 수요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쉬워진 신용대출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인터넷뱅킹 기반 대출신청은 직전 분기보다 229.4% 급증한 일평균 8606건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복안은 풍선효과로 인해 성과가 가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문제에 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신고객은 단 한 번의 미숙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이라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분야를 선점하고, 자사 플랫폼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같은 사업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이라고 불릴 정도의 흥행은 비대면 거래 방식의 편리함과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

로 금융시장에 존재감을 드러낸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존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기술 수준과 보급률은 이에 못지않게 상당한 수준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이용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금리부분에서의 경쟁력만을 믿고 가는 사업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타 시중은행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고품격 IT 서비스들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그것을 역설한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비금융기업 주주사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결제나 소액대출과 같은 분야에서 타 은행보다 앞서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을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고 카카오톡과 연계한 모바일 게임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는 확실치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학년 김용재 기자
kyjkjh12@police.ac.kr〉



▲ 인터넷은행계 선두주자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규제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과 결합되어 독점적인 금융자본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로, 현행 은행법 1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4%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지분의 10%까지 보유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사급고화, 즉 기업이 고객의 예금을 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은산분리 규제는 초기 흥행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자본의 확충 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주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주주사 플랫폼과 연계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 타 업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영역에 있어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업(ICT)의 의결권 행사를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로 인하여 투자 및 타 기업들과의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의 여파로 케이뱅크는 지난 7월부터 주력 대출상품이었던 '직장인K 신용대출'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 상품은 최대 1억 원까지 타 시중은행보다

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였으나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인 예대율이 90%에 육박하게 되면서 판매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바로 자본 확충인데, 이것이 은산분리 규제에 걸리게 됨으로써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기존의 상한 10%에서 34%, 혹은 50%까지 높이는 취지이지만, 의견 대립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 법안 통과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단 한 번의 허용이라도 추가적이고 예외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경계하는 입장이 강하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관한 문제도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힌 실정이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의 개정 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마련된 후야 추가 인가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1학년 옥재안 기자
royohk98@police.ac.kr〉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지속... 기존 은행들의 대응과 금융시장의 미래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업계가 바빠졌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점포유지 비용 절감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 대비 약 0.3%~0.7%p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케이뱅크의 출범 전후로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고객 유치 등을 위한 연 2%대 특판 예·적금의 판매가 개시되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의 간편 소액대출 등에 대응하여 여신 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오프라인 점포의 수를 줄였는데, 작년에만 전체 은행 점포가 15년 말 7,278개에서 16년 말 7,103개로 총 175개 감소하면서 02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용가입 상품에 대해 다양한 부가혜택을 부여하는 등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아직 케이뱅크가 진출하지 않은 전·월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구입대출, 환전서비스 등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또한 고객센터를 혁신하여 고객 편의를 위한 상담시간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상담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 1 금융권은 금리 경쟁력 확보, 조직 구성 개편, 앱(APP) 기능 강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과 같은 제 2 금융권에서도 편리·신속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는 비대면 형식으

로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노림으로써 금융 시장 전반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적인 서비스 형태를 의식해 인공지능(AI)기능과 결합된 챗봇(Chat-bot)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들을 늘리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챗봇(Chat-bot)서비스는 평일에 업무시간이 겹쳐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편의성을 대폭 증가시켰다.

시중은행들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통신사 SKT와 연계하여 생활중심 플랫폼인 '핀크'를 출시했다. '핀크'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자산을 관리해주는 인공지능(AI)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가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S뱅크, 씨니뱅크 등 자사의 온라인 뱅킹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APP)에서 회원 가입에 필요했던 기존의 8단계계를 5단계로 축소하고 로그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하는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사의 모바일 앱(APP) '리브'의 개편을 통해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출을 더욱 간편하게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함께 은행업계 전반에 있어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시장의 이원화 가능성 존재...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원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고객 위주의 프라이빗뱅킹(PB) 시장과, 비대면 업무 중심의 대중적 금융시장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편의성 중심의 대중금융시장으로, 일반은행은 이와 차별화된 프라이빗뱅킹(PB)시장으로 영역 확대와 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기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침투에 대응해 초기에는 예·적금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인하 그리고 편의성의 강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의 개편과 같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전략들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응하기 어려운 법률, 의료, 세무 등의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안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차별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 사이의 경쟁 확대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이전에 비해 좋아질 전망이다. 결국에는 소비자의 결정만이 남게 된 것이다.

〈4학년 정재우 기자
20140101@police.ac.kr〉

사형제도, 정의의 구현일까 생명권 침해일까

201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종교단체와 사회단체가 "20대 국회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최근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이나 '어금니 아빠 사건' 등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5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사형제 폐지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매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확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응답했다. 하지만 각종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매년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외국의 사형제도

사형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국가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있다. 두 번째로 브라질, 이스라엘 등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에 한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 세 번째로 브루나이, 레바

논 등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선고가 되고 있지만, 지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로 일본, 이란, 북한 등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등 국가 내 지역별로 사형제의 유지/폐지 여부가 나뉘는 국가가 있다.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105개국이고,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이다. 현재는 국제적으로 사형폐지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뿐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후 살인범죄가 30% 증가하여 사형제도의 집행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효과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들을 먹이고 재워주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진영 변호사는 "현행 헌법 하에서 사형은 합헌이고 사회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종합할 때 마땅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사형제 폐지의 가장 큰 근거로 꼽는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로 간주하게 되고, 범죄예방이라는 효율성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형태 변호사는 "오관 가능성이 많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모든 문명국가가 합의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목숨만은 손대면 안 된다."라며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재사회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범죄자

를 만든 사회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사형제도가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로 오히려 낮아 사형 집행과 살인 발생률간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정답은 나오지 않았다. 갈수록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과반수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실시하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매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국회에서 사형제 논란을 종결할만한 대안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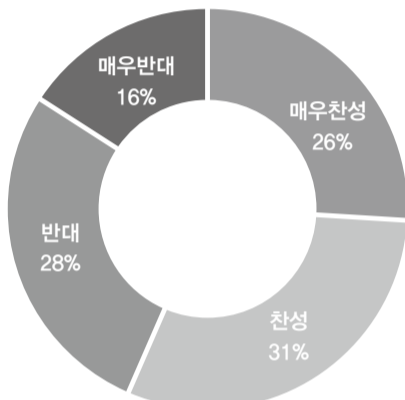
<1학년 김병준 기자
kyjkh12@police.ac.kr

사형제 폐지 논란의 배경

올해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다. 또한 한 국법제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65.2%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3%가,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79.4%가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찬반 입장

최초입장 결과 (1431명 투표)



▲ 사진 출처 : 데바이팅데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인과응보, 효율성 등을 근거로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해왔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형벌의 취지에 걸맞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형이라는 처벌의 존재만으로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고,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THINK GREEN

환경문제,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해주세요! 당신이 살아가는 오늘이 소중한다면,
다가올 내일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면,
쓸모없다고 쓰레기로 결정 내리기 전에
돌이켜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귀중한 자원으로 다가와 우리의
환경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재활용, 함께 생각해주세요.



‘그들 속의 그들’을 대면하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이수정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범죄심리학을 연구한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이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싶다’ 등 유명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각종 강력 범죄를 분석 및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범죄 심리학자로서 일선 수사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경찰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서, 범죄 수사에 조언과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개 범죄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2차 수사를 할 때 경찰청에서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은 사건 중 저는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제가 느낀 괴이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이었으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성도착 증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던 시기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 2명을 유사 강간하고 살해하는 것으로 첫 번째 연쇄살인을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자해를 여러 번 했지만 막지 못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 태도, 행동 등이 굉장히 이

상했고 전체적으로 황설수설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살인 동기를 물었을 때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려고 살인을 했다는 등 합리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짐승도 배고플 때만 동물을 죽이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동기로 타인을 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덕이나 윤리와 애당초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프로파일러와 범죄 심리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부터 범죄심리학을 훈련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아예 국내에서는 범죄심리학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고 심리측정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가 1999년도에 경기대학교에 오면서 범죄 심리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죄도 결국 사람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하는 학문인 심리학적인 소양을 길러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로서 범죄자와 일대일로 면담할 때 심리평가 및 측정 도구에 대한 공부를 한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범죄자와 같이 있

으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만나는 것은 저에게 의사가 환자를 만나 임상 경험을 하며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범죄자를 만나는 것은 절박한 문제이고 무섭고 꺼려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해서 보육원이나 맹아학교 등에 봉사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피고인들을 만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변호인조차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들에게 손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범죄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보다 정신과적 진단 아래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사람들을 분류하고는 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

표는 반사회적 행동의 반복성입니다. 강력범죄를 분석해보니 일부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호기심, 재미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90년대부터 서구사회 형사 사법기관에서 사이코패스라는 새로운 범죄자 유형을 분류하기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결핍이 없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부터 의사, 안정된 직장을 가진 공무원까지 단순히 쾌감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가 발생는 원인과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라는 이론으로서 서구사회에서는 돌연변이 유전자인 MAOA 유전자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후천적이라는 이론으로는 사람의 사회성은 만 3세까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받으면 뇌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뇌의 양상이 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 이수정 교수

가설이 옳은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0명 중 4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그 중 1명이 사이코패스일 만큼 그 수가 상당합니다. 보통 부정기형, 치료 또는 입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발찌를 통해 타율적으로라도 그들의 범죄 재범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등의 합리적 사고는 할 수 있기에 경각심은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학년 신유정 기자
sinnew1092@police.ac.kr〉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해바라기센터 김재원 소장



▲ 김재원 소장

서울 해바라기 센터는 2011년 2월에 여성가족부, 서울시, 서울시 경찰청, 서울대학교병원의 4차 협약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된 통합센터이다.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하고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의 김재원 소장님을 인터뷰하였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을 잘 치료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로서는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고비에서 저를 처음 만나는데, 제 도움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흐뭇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이 원했던 공부나 일을 하게 되었다면서 저를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서울 해바라기센터의 소장으로서 성폭력 피해

자를 지원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잘 치료되지 않을 때 힘듭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환자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잘 치료되지 않아서 오게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환자가 잘 치료되지 않으면 의사로서 자괴감, 회의감, 무력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과적 후유증도 잘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험이 많은 동료나 선배와 상의하고, 최신 치료 등을 논문에서 찾아보며 답을 구해나갑니다. 의사의 삶이 원래 이런 것이기에 이제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은 제가 아니고 환자라는 점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폭력의 피해자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이는 어른을 비롯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basic trust)를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많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안전한 곳인가?’라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를 대하는 어른은 아이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과 이 어른이라면 나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

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른이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아이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서울 해바라기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 5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서비스는 상당히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거 채취, 경찰 수사, 위기 개입,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찰대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 과전되어 근무하는 경찰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렇게 경찰과 가깝게 지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찰 전문가가 더 많이 양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대학생이 학생 때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신유정 기자
sinnew1092@police.ac.kr〉

고귀한 인생 한 그릇, 심영순 요리연구가



▲ 심영순 요리연구가

옛날 우리 조상이 한 방식을 바탕으로 한식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심영순 요리연구가에게 요리연구가로서의 삶에 관해 물어보았다.

어떻게 한식 요리연구가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네 딸을 기르면서 저의 딸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면 제가 준비한 도시락은 늘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교실에서 다른 학부모 대상 요리 강습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간단 가정식으로부터 전통음식에 이르기까지 음식에 일가견이 있으신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여러 가지 음식들을 기반으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외국 귀빈에게 소개했던 한식이 그들로부터 굉장한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며 한식은 외국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식대첩’(요리 경연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등장하셨는데 맛을 평가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간이 중요하다고. 또한, 사용한 식재료의 공합과 식재

료의 맛, 향, 영양을 잘 살린 조리법도 그에 못지않게 심사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식은 어떻게 음식을 담아내는가, 즉 담음새를 신경 써야 합니다. 요리사의 마음가짐을 담음새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인스턴트 음식이나 레토르트 음식 등으로의 식문화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음식은 직접 산 식재료로 스스로 요리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공식품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고 가공했느냐를 꼼꼼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라 하더라도 한식은 또 나름대로 ‘슬로우푸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문화를 단지 먹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습관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함께 장을 보고 만들어 먹는 삶의 방식이 젊은이들에게 즐거움으로 인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저의 꿈은 온전히 한식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일지라도 최소한 하루 한 끼만큼은 한식을 먹으며 건강을 지켰으면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한식을 조리하는 젊은 셰프들이 많이 나와 전 세계인들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4학년 유비 기자
20140071@police.ac.kr〉

151번 버스를 따라 소녀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다

동아운수 임진욱 대표의 프로젝트 '잃어버린 소녀의 꿈'

흑석동에서 일본 대사관이 있는 종로를 지나 우이동까지를 연결하는 151번 버스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한 손님을 태웠다. 그 주인공은 다음 아남 '평화의 소녀상'이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동아운수(대표 임진욱)는 자사의 151번 버스 다섯 대에 특별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을 태우고 운행하였다. 매일 아침 운행이 시작되면 버스 운전자는 소녀상의 버스 카드를 찍는다. 요금 정산기에는 조조할인이 된 성인의 버스 요금인 960원이 찍힌다. 소녀상 옆 차창에는 소녀상에 대한 소개문구와 설명이 적혀있고 NFC 링크로 특별제작된 버스손잡이에 휴대폰을 대면 소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동아운수 임진욱 사장은 '평화의 소녀상 버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한다. 버스를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매스미디어로 보는 것이다.



▲ 151번 버스에 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151번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주한일본대사관이 보인다.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녀상에 담긴 아픈 역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수많은 만행 중에서도 '위안부'는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전락시켜 인간으로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과 인권을 짓밟은 행위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은 제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다. 함께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유대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

민간 중심의 역사 인식 바로잡기 열풍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6월 13일 발표된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중 75.9%는 위안부 문제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런 국민적 반감 속에서 최근 민간 중심의 역사 바로 세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단연 예술계이다. '군함도,' '귀향,' '박열' 등 일제강점기의 잘 알려지지 못한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여 역사바로잡기에 동참하고 있는 동아운수이다.

소녀상 버스의 기획자, 임진욱 대표를 만나다

평화의 소녀상의 제작자인 김서경 김윤성 작가와 대학교 동창인 임진욱 사장은 어느 날 버스에 소녀상을 태우고 운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김서경 김윤성 작가와 논의하여 이번 프로젝트 '잃어버린 소녀의 꿈'을 진행하게 되었다. 151번 버스가 선택된 이유는 해당 버스가 주한일본대사관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임진욱 대표는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누군가는 불씨를 계속 지펴야 위안부 문제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본지의 기자는 임진욱 대표와 소녀상 버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동아운수 본사를 찾았다.

소녀상 버스를 탔거나 일부러 찾았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소녀상 버스를 일부러 찾아온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버스를 탄 시민들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편지를 쓴 여대생도, 출



▲ 김서경 김윤성 작가 부부가 임진욱 대표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소녀상. 버스 내 승객들의 안전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강화유리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다고 버선을 신겨준 시민도, 스카프를 둘러준 분도 기억에 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소녀상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는데 모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소녀상 버스 외에도 진행하였던 프로젝트가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버스는 편하고 편(fun)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가 여러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성격을 활용하여 미디어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6월이 되면 호국보훈 플랜카드를 버스에 붙였고, 미술관 버스 등을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술관 버스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다 최종적으로 독도 사진을 전시한 기획인데 아름다운 우리 땅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애착이 있습니다.

소녀상 버스 운행 이후에도 소녀상 프로젝트가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운행이 종료된 직후가 추석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귀향'이라는 테마로 기획한 것이 두 번째 프로젝트입

니다. 소녀상 다섯 대를 경기도 수원, 충청도 대전, 전라도 전주, 경상도 대구, 강원도에는 원주 이렇게 다섯 곳으로 보내어 추석 연휴 끝날 때 까지 각 지역에 있는 소녀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특히 수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역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며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회적으로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교육이 현재 부족하데 전근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음이 되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위안부의 날(매년 8월 14일)을 맞아 운행이 시작된 소녀상 버스 다섯 대는 9월 30일까지 운행되었다. 내년에는 여섯 번째 세계 위안부의 날을 맞아 여섯 대를 준비할 것이냐는 말에 임진욱 사장은 내년 세계 위안부의 날 전까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받아 버스를 준비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사회 구석구석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계속 불씨를 살려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불씨가 불꽃이 되고 햇불이 되어 소녀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 NFC 링크로 특별제작된 버스 손잡이. 휴대폰을 NFC 모드로 바꾸고 손잡이에 대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의 과거사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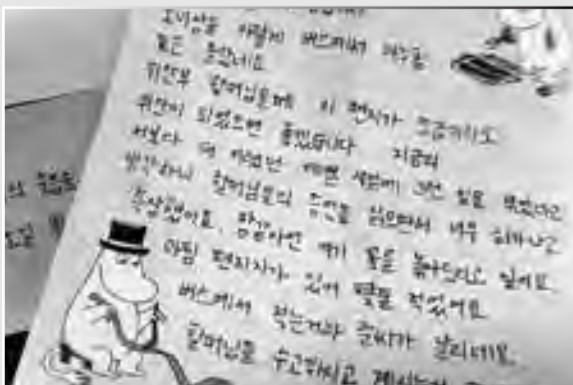
151번 버스에 태워진 평화의 소녀상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서울 종로 소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운 동상으로 현재는 국내외에 30여개가 있다. 소녀상의 제작자는 김서경 김윤성 부부이다. 요즘 전국 각지에 세워지고 있는 소녀상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의의와 한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둘째,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안녕과 위엄·유지의 관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일본은 기부금으로 10억엔을 한국 정부에 지불한다.

하지만 이 합의는 10억엔을 받았을 뿐 일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보단 돈으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이유로 들어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 전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5일간의 기록, '소녀상 버스'를 탄 승객들의 각양각색 반응



▲ 151번 버스를 애용한다는 한 대학생이 위안부 문제 피해자 할머니들께 쓴 편지. 달경거리는 버스 안에서 썼다.



▲ 맨발인 소녀상이 추울 것 같으면서 한 승객이 소녀상의 발에 신겨준 버선.



▲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소녀상. 더운 여름이었지만 목감기에 걸릴지 모르다며 어떤 시민이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었다.

영화 <Her>에서 본 미래, 제 단짝 친구는 챗봇입니다

“너 여자친구하고 얘기했는데, 이름이 사만다던가? 서류 받았냐고 전화 왔는데 배꼽을 뺐어. 완전 빵터졌어. 이렇게 아니라 언제 한번 뭉치자. 사만다 데려와, 더블 데이트하게.” “겐 운영체제야.”

영화 <Her>의 한 장면이다. 영화의 여주인공인 ‘사만다’는 인공지능 컴퓨터 운영체제로,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으며 매 순간 진화하는 일종의 ‘챗봇(chatbot)’이다. 처음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설계한 대로 작동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사람같이 대화하고 행동하더라도 과연 영화에서처럼 사람과 프로그램이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챗봇이란 무엇인가?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합친 단어로 영화 속 ‘사만다’와 같이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을 하는 로봇’을 일컫는 말이다. 더 정확하게는 정해진 응답 규칙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와 대담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으로, 영화 <Her>에서 표현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챗봇으로 (썬)이즈메이커가 2002년 개발한 대화 엔진 ‘심심이’와 애플의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Siri)’가 있다. 챗봇은 대부분 상업적 용도로 개발되어 쓰이고 있는데, 주로 쉬운 상담 업무나 배달음식 주문에서 간단한 문장을 통해 소비자가 의사를 전달하여 원하는 정보를 받는 방식이다. 챗봇의 사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유력 기업들이 앞 다투어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의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또한 ‘챗봇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서비스’가 수상한 바 있다.

왜 챗봇인가?

살면서 한 번쯤은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지, 약속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선택장애’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스위스모어 대학의 사회행동학 교수인 심리학자 배리 슈워츠(Barry Schwartz)는 이러한 현상을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질수록 오히려 결정을 포기하게 된다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로 정의하였다. 넓은 선택의 폭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본 전통적인 경제학의 시점과는 다르게 늘어난 변수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역설’ 현상에 챗봇은 빠른 해답을 제공한다. 점심으로 뭐가 좋을지 이용자가 고민에 빠지면 챗봇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메뉴를 제시하는 식이다.



▲ 로맨스 영화 <Her>에서 주인공 ‘테오도르’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chatbot)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테오도르’는 이어폰 너머로 ‘사만다’와 하루종일 대화하며 챗봇인 ‘사만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챗봇, 문제점은?

물론 챗봇이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챗봇의 행동이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챗봇을 통한 여론조작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에 가짜 뉴스가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데에 챗봇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챗봇의 SNS 계정이 가짜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선거에서 챗봇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이런 챗봇을 통한 정치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국경이 없는 온라인 상이다보니 법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챗봇은 미래 산업의 중심 중 하나로 꼽히며 꾸준히 개발되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챗봇은 수년 내로 우리의 일상 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챗봇과 사람이 연애를 하는 세상도 꿈은 아니지 않을까.

〈1학년 채정현 기자
hyun4331@police.ac.kr〉

도심 속 시간이 멈춰 있는 한옥마을 익선동에서 보내는 느긋한 하루

중로 한복판에는 특별한 마을이 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크지는 않지만 특별한, 빌딩 숲 속에 숨겨진 한옥마을, 익선동이다. 익선동은 종로3가역과 안국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운현궁과 종묘가 있다.



▲ 조선 말기의 한 획을 그은 운현궁에서 느긋하게 앉아 하늘을 바라보자.

조선 말기를 품고 있는 ‘운현궁’

익선동 앞에는 운현궁이 있다. 익선동 가는 길에 운현궁을 들르면 좋다. 운현궁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거처하던 곳이다. 고종이 즉위한 후에는 고종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의 사가(私家)로 사용되었다. 원래는 궁궐에 비할 만큼 그 규모가 크고 웅장하였으나 많은 건물이 소실되어 현재의 운현궁은 매우 작은 규모이다. 화려한 단청은 없지만 소소한 멋과 고풍스러운 분위기 덕에 운현궁은 쉬어갈 곳으로 손색이 없다. 서원철패, 경복궁 중건 등 흥선대원군의 수많은 개혁이 결정된 곳인 만큼 조선 말기의 한 획을 그은 장소에서 느긋하게 앉아 가을 하늘을 감상하는 것은 어떨까.



▲ 익선동의 카페 ‘식물’. 통일성이 없어보이지만 다양한 소품과 가구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조용하여 담소를 나누기에도, 공부할 하기에 좋다.

운현궁을 지나면 교동초등학교가 나온다. 교동초등학교는 1894년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이다. 익선동은 북촌과 같이 한옥 마을이지만 북촌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골목 골목 사이에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운현궁과 교동초등학교를 지나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면 빌딩 사이에 숨겨진 보석이 등장한다. 작은 마을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붐빈다.

익선동은 100년전부터 명맥을 이어온 한옥마을이다. 골목은 좁지만 골목 주위로 펼쳐지는 가게 내부는 커서 비좁거나 답답하지는 않다. 오히려 느긋하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익선동이다. 작은 마을이지만 음식점, 카페,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한복 및 옷가게, 꽃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게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특히 요즘은 볼 수 없는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등이 있어 꼭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 꽃집에서 파는 식물.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사람들을 반긴다.

만들집 ‘창화당’

익선동의 맛집인 ‘창화당’은 만들 집이다. 줄이 길어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야하는 이 만들집에서는 만두뿐만 아니라 볶음밥, 떡볶이도 맛볼 수 있다. 떡볶이는 바삭한 과자와 갇힌 울라가 특별한 식감을 제공하는

다. 만두에는 새우 만두, 고추 만두, 고기 만두, 김치 만두가 있다. 만두는 쫄깃한 피가 일품이다. 여기에 북고풍의 분위기와 예스러운 조명이 음식의 풍미를 더한다.

카페 ‘식물’

작은 카페인 듯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계속 공간이 있어 놀라게 하는 카페 ‘식물’은 편안한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소품이 인상적이다. 또한 통일되지 않은 탁자, 의자 그리고 조명에 이르기까지 소품의 다양함이 특징이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어울린다. 또한 사소한 것이지만 음료의 컵받침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다는 점이 느껴진다. ‘c’자 구조로 만들어져 햇빛이 잘 들어와서 느긋하게 앉아 햇볕을 쬐며 시간을 보내기 좋다.



▲ 비디오가게의 10월 추천 영화 포스터.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다.

비디오 가게와 만화가게

영률비디오타운은 비디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내부는 빈티지하게 꾸며져 있는데 넓진 않지만 식물이 구석구석 놓여있

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비슷한 느낌을 자아내는 만화가게는 마찬가지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카페이다. 요즘 보기 힘든 만화방이 익선동에는 여전히 있다.



▲ 요즘엔 보기 힘든 만화방도 익선동에는 항상 문이 열려있다.

한복가게와 각종 옷가게

익선동에는 한복을 파는 옷가게가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트렌드화 되고 있는 개성 있는 한복을 구경할 수 있다. 한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옷과 가방, 액세서리를 팔고 있으니 골목을 지나가다 눈길을 끄는 것이 있으면 들어가 보면 될 것 같다.

익선동은 시간이 멈춘 듯 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옥마을이다. 작은 동네지만 한나절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다. 주말 또는 쉬는 날에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익선동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면 몸도 마음도 힐링될 것이다.

〈4학년 조정필 기자
jojp95@police.ac.kr〉

철공소와 미술관이 상생하는 특별한 거리, 서울 문래예술촌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에서 나와 200m 정도 걸으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용접공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철공소들이다. 2층은 예술작가들의 작업실로 준비하다. 망치와 못 모양의 조형물이 보이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 사이로 햄버거 가게, 일본식 가정집, 백반집 등의 음식점들이 프랜차이즈 점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다양한 예술 작업 공간들과 카페, 대안 공간, 골목의 벽화들, 그리고 철공소가 어우러져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곳, 문래예술촌이다.



▲ 문래예술촌의 골목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벽화

문래 예술촌의 역사

대부분의 ‘예술촌’들은 정부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형성된 데에 반해, 문래동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예술촌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래 예술촌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일까?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당시 많은 방직공장이 들어섰던 현재의 영등포구 일대는 광복 이후 ‘문래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방직기계 ‘물레’의 발음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문래동은 철

강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IT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곳의 철재 업체들이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홍대와 대학로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예술가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섰고, 그 중 상당수가 임대료가 저렴한 문래동으로 흘러오게 된다.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 외에도 철강소의 소음에 묻혀 시끄러운 작업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도 예술가들의 마음을 끌었다. 문래동에 터를 잡은 예술인들은 작업실에만 갇혀있지 않고 넓은 철강공장벽에 그림을 그리고, 골목에는 급속의 조형 작품을 세우며 예술거리를 탄생시켰다. 현재 문래동에는 300여 명의 예술인이 100여 개 작업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0번지에 위치한 문래예술공장은 서울시 창작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문래동 철공소 거리의 옛 철재공장 부지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1월 28일에 개관하였다. 문래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공연장과 연습실을 겸한 박스씨어터, 스튜디오M30, 녹음실, 영상편집실 등 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해외 예술가들과의 국제 교류를 위한 호스텔까지 제공하고 있다.

문래예술공장의 핵심프로젝트인 ‘MEET’는 예술창작과 발표, 예술가 간 교류 및 지역주민, 인근 상공인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MEET 2017>이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

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100여 명의 국내외 예술가 참여로 이루어지며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Mullaebong Arts Plus) 은 다원예술, 전통기반 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의 장르 특화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이다. 또한 문래동의 대안공간 및 예술가(단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 및 프로모션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호주 REM Theatre와 싱가포르의 The Substation 기관 간 예술가 교환을 기반으로 공동창작워크숍을 진행하여 장기적인 국제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가 간 협업 환경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문래예술공장 전경

문래예술촌의 대안 공간들

대안공간이란 미술관·화랑의 권위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미술가의 제작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비영리적인 전시공간을 뜻한다. 문래예술촌에는 다양한 예술 전시, 공연 등이 펼쳐지는 대안공간들이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소개한다.

◎정다방프로젝트(영등포구 문래 4가 7-1) : 문래동에 있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전하기 전 그 맞은편에서 30여년의 세월을 법원 민원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운영되던 ‘정다방’이 문을 닫게 되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다방’이라는 소통의 장소를 현재의 문래동 예술촌과 연계시키는 정다방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안공간이다.

◎치포리 (영등포구 문래동3가 58-84 2층) : 사회적기업 안테나가 2013년 12월 <문래동컬처매거진 문래동네>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연북카페 겸 갤러리이다. 많은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인문도서를 기부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문래예술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아카이브 자료와 국내외 문화예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뭍골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57 3층) : 뭍골은 창작집단 ‘극단 뭍골’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뭍골 상상력 훈련소’, 문화예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이꿈이 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소한 언어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실험하며 다른 소외된 예술들을 불러모으는 위험을 감수하고, 동시에 사



▲ <구도> 공연 장면. 배우의 숨에서, 확장된 공간의 연구에서 그 지향점을 인정받은 극단 뭍골과 뭍·뭍·공기 등의 근원적 소재의 시각화로 야외의 공간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루나티스가 만난 대형 야외극이다. 8회의 국내투어공연과 40회의 유럽투어 공연을 통해 ‘섬세한 움직임과 기발한 스펙터클의 조우’라는 찬사를 들었다. (출처:극단 뭍골)

회가 있어버린, 혹은 지나치고 있는 정의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기를 지향한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안공간들을 방문하기 위해, 또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문래 예술촌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도 예술공간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특히 곳곳에 주민들의 초상권을 존중해달라는 애교 있는 문구들이 걸려 있었다. 또한 문래 예술촌이 예술가들보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관광지’로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오하려 이곳에 상주하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문래동을 떠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주말에는 문래예술촌을 걸으며 봄비는 서울 속 보석과 같은 문래예술촌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4학년 정승교 기자 click425@police.ac.kr>

‘템플스테이’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템플스테이(Temple Stay)는 사찰에 머물면서 수행스님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올해로 15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템플스테이는 OECD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문화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험 콘텐츠로 우뚝 섰다. 힐링, 치유 코드의 유행과 함께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 템플스테이 중 연등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웃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은 일상의 차분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만이 이루어 낸 결과는 아니었다. 템플스테이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템플스테이는 수행스님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특히 사찰음식 체험 사찰, 외국인 관광객 사찰 등을 운영하면서 더욱더 전문화된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사찰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찰순례, 예불, 참선, 차담, 발우공양 등이다.

사찰순례는 단순히 불교사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사찰의 구조, 건축, 조각, 공예, 단청 등 각종 불교 문화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민족의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사찰순례는 불교 문화재의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조상들의 가르침 또한 얻을 수 있는 체험이 될 것이다.

사찰의 예불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고요한 산사를 깨우는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법당 안 스님들의 예불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또 해가 넘어갈 때 웅장한 범종 소리가 다시 한 번 예불 시간을 알리면 산사의 모든 이들이 함께 예불을 올린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다.

참선은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는 수행법이다. 스스로 되돌아보는 성찰 과정을 통해 보다 밝고 긍정적인 삶

을 살아갈 자양을 얻을 수 있다.

한국현대인들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해민스님, 법륜스님 등 유명한 스님들의 글을 찾아 읽으며 지친 마음에 위안을 얻고 있다. 수행을 하는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템플스테이가 주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이다.



▲ 전주한국음식관광축제에서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부스에 전시된 발우공양에 쓰이는 나무 식기. (출처 : 다음블로그 ‘유담의 등산과 여행’)

발우란 절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전통 식기이다. 발우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식사하는 것을 ‘발우공양’이라고 하는데, 발우공양은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

연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는 지혜의 식사법이다.

지난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강원도 내 주요 사찰 및 수도권의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2017년에도 바쁜 현대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템플스테이가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행사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말에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또는 외국인 친구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색다른 경험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1학년 이예림 기자 yr4978@police.ac.kr>

3rd Seoul International Food Film Festival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에나 지금이나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라는 고민은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하나의 음식에는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 문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최근 TV나 각종 미디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일명 ‘떡방’이나 요리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와 관련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음식 외에도 다양한 문화생활이 있지만 특히 영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주는 중요한 문화생활이다. ‘음식’과 ‘영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연결시킨 특별한 영화제가 있다. 바로 ‘서울국제음식영화제’이다.

◎**새로운 맛의 발견** : 베를린영화제, 산세바스티안영화제, 암스테르담다큐멘터리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화제를 모았던 신작들과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국적의 음식 영화들을 소개한다.

◎**클래식 레시피** : 음식을 소재로 다룬 영화를 논할 때면 가장 먼저 회자될 만한 대표적인 고전 및 컬트 영화들이 포진하고 있어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을 추억의 명작 여행으로 이끈다.

◎**지속가능한 밥상**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화두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산업적 식품 체계의 문제에서부터 먹을거리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슈를 다루는 영화를 상영한다.

◎**맛있는 한국** : 한국에서 제작된 음식 소재의 영화들을 필두로, 한식의 맛과 멋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특별전2017_이탈리아의 맛** :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하고 그 나라의 다양한 음식영화를 소개한다. 올해는 파스타와 피자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탈리아의 음식영화를 소개한다. 국가특별전을 처음 시작한 2016년에는 프랑스의 음식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영화 상영 외에 이탈리아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파티인 ‘이탈리아의 밤’을 비롯한 다양한 토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오감만족국제단편경선** : 여러 문화권의 음식에 대한 생각과 다채로운 상상력을 만날 수 있는 단편영화들을 선보이는 부문으로 올해부터 경쟁부문이 되었다. 공모과정을 거쳐 세계 각국에서 약 630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예심을 거쳐 19편의 작품이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되었다. 영화제 기간 중 또한 한 번의 심사를 거쳐 3편의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금은 낯설고, 새로운 이 영화제의 깊은 이야기를 제3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우정씨에게 들어 보았다.

Q **‘독립 영화제’, ‘음악 영화제’는 들어 봤지만 ‘음식 영화제’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요, SIFFF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오랫동안 여러 영화제에서 일하면서 특정한 테마가 있는 영화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테마를 정해서 영



▲ 제 2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 ‘프랑스의 밤·보타페티’에 참가한 사람들이 영화시작 전 프랑스 음식들을 맛보고 있다. 특별전 2016: 프랑스의 맛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인증사업 ‘한국내 프랑스의 해’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다채로운 프랑스 문화를 선보였다. (출처 :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화를 소개한다면 그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그리고 제대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에도 ‘음악, 여성, 환경, 인권’ 등 다양한 테마의 영화제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평소 영화와 음식 양쪽 모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바베트의 만찬>이나 <초콜릿> <엘리제궁의 요리사> 등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를 즐겨 보았고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했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소재 영화만을 모아서 상영하고, 영화 상영 외에 영화 속에서 나온 음식을 현장에서 요리하거나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불러 그 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강연이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던 정말 즐겁겠구나”라고요.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이 SIFFF의 출발이었습니다.

Q **영화제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행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 또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정도 영화제 일을 해왔는데 그 해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과정이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도 있고, 행사의 결과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흔히 ‘팀워크’라고 말하는 건데요. 영화제도 결국 사람들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다면 행사장의 분위기도 좋고, 그 어떤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제를 찾는 관객

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영화제 운영의 책임자로서 직원들 간에 좋은 팀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씁니다.

Q **우리의 삶에서 ‘음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게 음식의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은데요. 동시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을 줍니다.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무니까요!^^ 가난했던 과거엔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배를 채운다는 게 중요했다면 음식이 풍부해진 요즘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We are what we eat”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먹는 것이 우리를 나타낸다. 먹는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진귀한 것, 비싼 것을 먹느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제 값을 주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격이 싼 식재료만을 찾다 보니 최근 유전자 조작이나 공장형 축산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Q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전의 영화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올해 가을로 행사 시기를 옮긴 점입니다. 1회 때는 여름, 2회 때는 봄에 개최했었는데요, 많은 음식을 안전하게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날씨의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선선한 늦가을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음식영화제에 가장 적합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올해 3회를 맞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개최의 성공에 힘입어서 2회 때는 영화 편수도 늘리고 다양한 음식 관련 이벤트도 시도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가을 추수 직전의 곡식 알갱이처럼, 속이 꽉 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맛있는 토크’ : 영화 상영 후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영화 속 음식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출처 :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는 장·단편 영화 60여편 상영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에서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음식을 직접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영화 끝난 후 이어지는 ‘맛있는 토크’에서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나 음식 전문가들이 영화 속 음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 제 3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2017년 11월 16일(목) ~ 21일(화) 6일간 메가박스 이수와 아트나인에서 열리며 영화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학년 송채은 기자 20160047@police.ac.kr〉



▲ 제 3회 서울 국제음식영화제 포스터 : 정성을 담아 만든 장미 작은 향아리를 채우고 있다. 정성껏 숙성시킨 음식의 맛처럼 한 뼉 더 성숙한 영화제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다.

2015년 첫 발을 내디딘 서울국제음식영화제(SIFFF : Seoul International Food Film Festival)는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영화를 통해 고찰한다.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 영화제로, 음식과 영화를 매개로 세계 곳곳의 삶의 모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축제이다. 인생의 맛과 여유를 환기하는 영화들을 통해 삶의 미각을 되찾는 맛있는 힐링을 지향하며, 건강한 먹을거리와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화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다르지 않고, 어렵지 않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망자 36%가 안전모 미착용,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연평균 35명이 구명조끼 미착용,
지난해 성병 감염자 1671명이 콘돔 미착용,

안전사고 예방, 모양새는 달라도 안전을 위한 쓰임새는 같습니다.